

독서할 때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다.	일동중학교 도서관 소식지 지혜의 샘터 〈2017-1호〉	발행처 : 일동중학교 도서관 편집인 : 도서부 발행주기 : 월 간 발행일 : 2017.03.3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99번길 39 홈페이지:www.ildong.ms.kr Tel.532-3813		

- 학생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1학년 학생들은 학생증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려주시고, 2,3학년 학생 중 학생증이 없는 학생들은 재발급을 받아 도서대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의 책들은 여러분들이 아끼고 소중히 해야 할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책이나 잡지 등은 찢거나 낙서하지 말고 소중히 다루주세요.
- 4월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입니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도서관에서 행사가 열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도서관 이용 안내

1. 이용시간

월~금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30분
휴관일 : 공휴일, 개교기념일, 학교장이 정한 휴교일 등

※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 대출방법

- 찾는 책이 없을 시에는 언제든지 사서선생님께 문의하세요.
- 도서관에 없는 책은 희망도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친구 학생증을 빌려서 대출 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권수는 2권이며, 대출 기간은 일주일(7일)입니다. -
- 대출기간을 지나 연체할 경우 연체한 일 수 만큼 대출정지 됩니다.
- 만화책이나 간행물, DVD는 대출 할 수 없습니다.
- 도서를 분실할 경우 동일한 책으로 변상해야 합니다.

※ 도서관에 들어오는 모든 책들은 각각의 주제에 따라 고유한 번호를 받고 분류되어 서가에 꽂힙니다.

[한국십진분류표]

KDC 번호	주제	KDC 번호	주제
000	총류, 독서	500	기술과학
100	철학	600	예술
200	종교	700	언어
300	사회과학	800	문학
400	순수과학	900	역사, 전기

- ▶ 철학과 관련된 책을 읽고 싶다면 100번대 서가에서
- 예술과 관련된 책을 읽고 싶다면 600번대 서가에서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것

1. 도서관에서는 안정된 마음으로 독서를 하기 위해 큰 소리로 떠들지 않습니다.
2. 뛰어다니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독서에 집중한 학생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3.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와 먹지 않습니다.
4.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5. 책이나 간행물을 조심히 다룹니다.
6. 핸드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7. 읽던 책은 북트럭에 올려놓습니다.
8. 교실이나 다른 곳에서 도서관 책을 발견할 경우 도서관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9. 책을 읽은 후 자신이 앉았던 자리는 정리정돈 한 후 퇴실합니다.
10. 도서관의 책은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인만 보기 위해 숨긴다던지 몰래 가지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11. 대출이 이미 완료된 책은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가 안으로 들어갈 경우 대출한 책을 사서선생님께 맡기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2016년 대출 순위

4월 행사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세계 책의 날

[World Book and Copyright Day]

4월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세계 책의 날)'.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되었으며, '세계 책의 날'제정을 계기로 유네스코는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기념일은 독서와 저술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저작권의 증진에 기여하면서, 책의 창조적, 산업적, 정책적, 국내적, 국제적 측면 등 다양한 면모를 끌어내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날짜가 4월 23일로 결정된 것은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까딸루니아 지방 축제일인 '세인트 조지의 날(St. George's Day)'에서 유래했으며,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가 사망한 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국내에서는 2012년 '독서의 해'를 맞아 책으로 행복한 마음을 전하는 책 선물 문화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하에 공모를 통해 세계 책의 날의 애칭을 '책 드림 날'로 정했다.

'책 드림'은 '책을 드린다'라는 뜻과 영어 'Dream'으로 '책에서 꿈과 소망, 희망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출처] 세계 책의 날 [世界冊一, world book day] | 네이버 백과사전

4월 세계 책의 날 기념 행사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입니다. 책의 날을 기념하여 도서관에서 여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NO	서명	저자
1	정령왕 엘퀴네스	이환 지음
2	이드	김대우
3	마법군주 인 칼리스타	발렌 지음
4	오베라는 남자	프레드릭 배크만
5	신룡의 주인	태선
6	그래도 괜찮은 하루	구작가
7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8	오사카 소년 탐정단	히사시노 게이고
9	황제의 외동딸	윤슬
10	태화	박슬기
11	달을 사랑한 괴물	김지우
12	플라리스 랩소디	이영도
13	너에게 하고 싶은 말	김수민
14	위저드 베이커리	구병모
15	유진과 유진	이금이
16	씨니	박이정
17	눈물을 마시는 새	이영도
18	옛날에 내가 죽은집	히가시노 게이고
19	내 인생 최악의 학교	제임스 패터슨
20	박지성의 마이 스토리	박지성



세종대왕: 손이 닿는 곳곳에 책을 두어라

신하들과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경연을 1800회 이상 열 정도로 독서에 열정적인 임금이었던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독서량을 자랑한 호학의 군주였다. 그는 백 번 읽고 백 번 쓰면 자연스레 책의 참 뜻을 알게 된다는 '백독백습(百讀百習)'을 통해 책 한 권의 지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세종은 궁궐 곳곳에 손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책을 비치하여 읽고 싶은 책을 곧바로 펼칠 수 있게 만들어 자투리시간까지도 독서를 생활화했다.



처칠: 역사책을 즐겨 읽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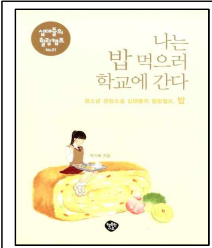
영국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 처칠은 어릴 적부터 매 학기 낙제를 면치 못했던 학교 부적응자였지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독서광이었다. 특히 역사와 정치관련 도서를 집중적으로 탐독했는데 그로 인해 급박하게 전개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줄 알았고, 격조 높은 문장과 연설문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폭 넓게 많은 역사서를 접했기 때문이었다.

처칠은 일찍이 기자활동과 책 집필을 했기 때문에 독서를 하다가 마음에 남는 문장을 발견하면 메모해 두었다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만의 어록을 완성시키기도 했다. '설령 책이 당신의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아는 체하며 가벼운 인사 정도는 반드시 하고 지낼 일이다.'라는 명언은 그가 진정한 독서광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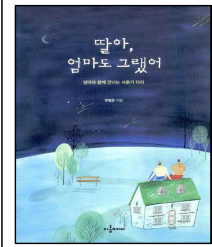


케네디: 책을 읽은 후엔 토론을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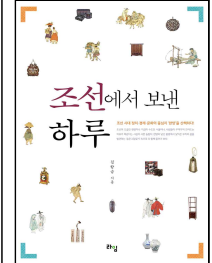
케네디의 어머니 로즈여사는 9남매의 교육방법으로 매일 독서 리스트를 정해 책을 읽게 하고 독서 후에는 반드시 토론을 벌여 케네디가 형제들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게 했다. 미국 35대 대통령 케네디 또한 어린 시절부터 형들과 토론을 위한 독서를 즐겼다. 그로 인해 같은 책을 읽고도 서로 다른 생각과 의문점, 느낌 등을 주고받으며 통찰력을 높여 갔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심을 키울 수 있었다. 그의 도서 목록에는 뉴욕 타임즈 등 신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사회변화와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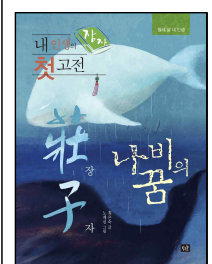
나는 밥 먹으러 학교에 간다 박기복 | 행복한나무
 '먹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청소년 소설. 아이들은 먹으면서 친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먹으면서 친구를 왕따 시키기도 한다. 마시멜로우를 삼킨 다음,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의자에 등을 기댄 후 '하~ 좋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 아이들의 일상을 만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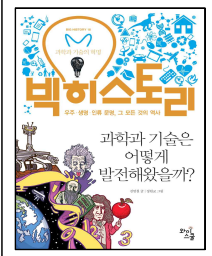
딸아, 엄마도 그랬어 유명은 | 아롬미디어
 홀로 아이를 키운 저자가 현재는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사춘기를 지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풀어놓았다. 우울증, 공부와 시험 스트레스, 이성 문제, 핸드폰 중독 등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주제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



조선에서 보낸 하루 김향금 | 라임
 조선 왕조의 도읍지인 한양을 구경하는 역사 교양서이다. 정치사 위주로 자못 딱딱한 교과 과정과 달리, 단 하루 동안 한양에서 보내는 역사 여행은 청소년 독자들에게 말랑말랑한 생활사에서 시작해서 조선 왕조 전체의 역사를 그려 보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내 인생의 첫 고전 최은숙 글, 노계선 그림 | 작은숲출판사
 장자 이야기를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쓴 책. 질문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너무 바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할 틈이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자는 장자 이야기를 통해 "마음과 태도를 정신 차리고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자는 생각으로 장자 이야기를 하나하나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과학과 기술은 어떻게 발전해왔을까? 김명철 글, 정원교 그림 | 와이스쿨
 문화적 진화 과정의 특징을 보여 주고 인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과학과 기술의 발전 양상을 살피고, 이와 연관된 과학자들을 만나 이들이 남긴 믿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과학의 진화에 이바지했는지 알아본다. 나아가 과학과 기술의 진화가 인류 문명의 진화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